

이상민 직무정지... 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행안부 장관

찬 179·반 109·무효 5표로 가결
참사 책임... 헌재 심판 체제로
野 “국민 명령에 따라야 할 책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하고,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이에 따라 헌재는 조만간 탄핵 심판 체제에 들어갈 전망이다.

대통령을 제외한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299명) 3분의 1(100명)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의 과반(150명)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7일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173명의 이름으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이날 무기명 투표에서 179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 정본이 전달되는 대로, 탄핵 심판 절차가 개시된다. 국민의힘 김도



8일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

을 법사위원장이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이 된다. 헌재 판결 전까지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날 제안 설명에 나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태원 참사 후 국회는 대통령에게 재난 및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이 장관 해임을 건의했다. 국정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이 장관 파면을 촉구

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답하지 않고 있다”고 탄핵소추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탄핵소추안에는 국정조사로

밝혀진 진실이 담겨 있다”며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공직자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한 책임, 국회 위증, 유족에 대한 부적절 발언, 2차 가해 등 탄핵 사유가 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희생자, 유족, 국민이 국회에 명하고 있다.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다해 국민 명령에 따라야 할 책무가 있다”면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이름을 한명 한명 불렀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이태원 희생자 유가족협의회의 이종철 대표는 “정부가 철저히 침묵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이제라도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서 논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동의안을 내놨다.

하지만 재석 289명에 찬성 106명, 반대 181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이후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올려 가결시키면서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정부 질문 보다 먼저 할 수 있게 됐다.

▶관련기사 2·3면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광주시 ‘고령친화도시’ 구축... WHO 재인증 도전

세계보건기구

5개년안 확정... 4조1494억원 투입
스마트 돌봄복지 등 신규 과제도

광주시가 ‘고령친화도시 5개년 조성’ 계획을 확정하고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재인증에 도전한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청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위원장인 문영훈 행정부시장과 시의원, 기관·학계 전문가, 관계 부

서장 등 위원 14명으로 구성된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열고 ‘제2기 고령친화도시 조성 5개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제2기 기본계획은 광주시가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재인증을 위한 것으로, 위원회는 지난 3년간 추진한 제1기 실행계획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수립한 제2기 기본계획의 정책방향과 비전, 주요 정책을 보고 받고 논의·심의했다.

확정된 기본계획을 보면 ‘내일과 존엄

한 삶이 있는 건강활력도시 광주’를 비전으로 △일자리 △사회참여 △돌봄·인권 △보건·요양 △생활환경 등 5개 영역의 52개 세부과제에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 4조1494억원을 투입해 추진한다.

주요과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빛고을50+ 일자리, 빛고을효령노인타운 운영 조성, 고령친화 공공도서관 서비스 제공,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제공, 장기요양서비스 지원, 영구임대 아파트 주거공간 개선 등이다.

특히 스마트케어 서비스 구축, 모바일 헬스케어,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운영, 세대별 맞춤형 예비창업가 발굴 육성, 평생학습형 일자리 플랫폼 운영, 스마트 횡단보도 구축, 광주형 도시농업 육성 지원 등 14개 신규 과제를 추진한다.

이와함께 광주시는 제2기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이달중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재인증(가입) 신청을 마치면 3월에는 가입이 승인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영훈 행정부시장은 “의료기술의 발달로 기대수명이 100세를 넘어가고 있고

령화는 도시발전의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며 “우리시가 노인정책 변화의 세계적인 흐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는 전 세계적인 고령화와 도시화 문제에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가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나이가 드는 것이 불편하지 않고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활력 있고 건강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도시’ 조성을 지향하며, 현재 44개 국가 1110여 개 도시(국내 33개)가 가입했다.

박상지 기자 sangji.park@jnilbo.com

제20회 호남마라톤

대회일시 2023년 4월 16일(일) 오전 7시~

대회장소 승촌보 영산강문화관 뒤 광장

대회코스 승촌보 영산강문화관 ~ 나주 영산교

종 목 남·여 개인전 10km, 하프

참 가 비 30,000원

참가신청 호남마라톤 홈페이지 (www.호남마라톤.kr/)
메일 419marathon@hanmail.net

접수마감 2023년 3월 31일(금) (선착순 500명)

참가문의 061) 375-1201

주최 全南日報

주관 전일엔컬스 마라톤세상

후원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